

‘우생순’ 신화 다시 한번... ‘16년째 노메달’ 끝는다



한국 유일 단체 구기 종목 출전 유럽리그 우승 ‘여왕’ 류은희 등 “8강 진출하는 게 1차 목표” 25일 밤 독일과 예선 첫 경기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헨리크 시그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023년 8월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마지막 4차전에서 일본을 꺾고 승리하며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한국은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 남녀 핸드볼 최초 11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2008년 베이징 동메달 이후 줄곧 ‘노메달’에 그쳤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지난 4월 막을 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에서 ‘용호상박’을 이룬 강경민(SK슈가글라이더즈)과 우빛나(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의 활약이 기대된다.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두 번째 출전인 강경민은 지난 H리그에서 160골을 올리며 득점 2위,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2014년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한 그는 데뷔 첫 시즌 신인상 수상에 이어 2019-2020시즌 여자부 MVP, 베스트7, 득점왕으로 선정되며 ‘자타공인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이후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한 강경민은 꾸준한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우빛나는 2019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서울시청에 입단해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 H리그에서 190골을 넣어 득점 1위, 97 도움으로 어시스트 2위를 기록해 정규리그 MVP로 뽑혔다. 지난해 12월 세계선수권에서 36골을 터뜨리며 팀 내 득점 1위, 전체 공동 17위에 랭크됐다.

국내 리그에서 득점왕 맞대결을 벌였던 이들이 한 팀에서 보여줄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한국은 지난 18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치러진 네덜란드와의 올림픽 최종 평가전에서 24-26으

로 패했다. 네덜란드는 2020도쿄 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8강에 오른 강한 상대다. 강경민과 우빛나는 14-17에서 연속 득점으로 21-21을 만들어 내는 등 ‘찰떡 호흡’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신은주(인천시체육회)와 라이트백 류은희(청기리 교리)의 선후배 케미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팀 주장인 신은주는 지난 5월 미디어테이를 통해 “힘든 경기를 예상하고 선수들도 걱정 많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8강 진출이 1차 목표”라며 “코트 안에서는 왕이라 선수들을 이끌 수 없는 위치다. 코트 안에서는 류은희가 이끌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막내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류은희는 ‘핸드볼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그가 속한 청기리 교리는 지난 6월 독일 SG BBM 비에탁하임을 누르고 2024 유럽핸드볼연맹(EHF) 챔피언스리그 여자부 파이널4 결승에서 승리했다. 류은희는 국내 선수 최초로 2024 EHF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25일 밤 11시 예선 A조에서 독일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어 28일 오후 6시 슬로베니아, 30일 오후 6시 노르웨이, 8월 1일 오후 6시 스웨덴, 8월 4일 오전 4시 덴마크를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퐁텐블로 프랑스국가방위스포츠펀데에 마련된 대한민국 선수단의 사전 캠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거즈’ 1위 독주 막지마



투·타 환상호흡에 6연승 질주 ‘8승1패’ NC ‘4승1패’ 키움 상대 최지민·정해영 마운드 복귀 임박

‘호랑이 군단’이 뜨거운 방망이로 1위 독주를 이어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1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했다. 5-7로 뒤지던 상황,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김도영이 대타로 나와 한화 마무리 주현상과 7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며 좌전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최원준의 볼넷을 더해 만든 1사 1·2투, 앞선 4타석에서 안타 없이 2개의 삼진을 기록했던 최형우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8-7을 만들었다.

그리고 KIA는 전상현을 내세워 9회말을 실점 없이 막고 한화전 스위프와 함께 6연승을 완성했다.

주중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만난 KIA는 기분 좋은 2위 직크스를 이어갔다.

16일 비로 하루 쉬었던 KIA는 17일 최형우의 챔피언스필드 홈런전 때리는 투리포와 나성범의 만루포로 10-5 승리를 만들었다. 18일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65분간 경기가 중단됐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KIA는 이 경기도 10-4로 마무리했다. 2위로 광주를 찾았던 삼성은 연패를 당해 3위로 내려앉았다.

KIA는 주말에도 기분 좋은 승리를 이어갔다. 소크라테스와 최원준이 연일 담장을 넘기는 등 KIA는 지난주 5경기에서 0.362의 팀타율과 함께 10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승수를 쌓았다.

마운드에서는 ‘난세의 영웅’도 탄생했다. 윤영철

의 부상 여파로 선발로 이동한 김도현이 ‘깜짝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팀 연승을 이었다.

최고 153km 강속구와 함께 커브, 슬라이더, 체인 지업 등의 변화구를 구사한 김도현은 무엇보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단 하나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68구로 5회를 책임졌다.

뜨거운 화력과 마운드 새 전력으로 6연승을 달린 KIA는 ‘강세 잇기’에 나선다.

주중 홈에서 NC 다이노스와 맞대결을 갖는 KIA는 주말에는 고척돔으로 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올 시즌 가장 강했던 상대와 가장 많은 경기가 남은 팀과의 승부다.

NC와의 올 시즌 상대전적은 8승 1패다. 2위에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넘봤던 NC는 KIA에 6연패를 당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키움과는 올 시즌 5번의 만남만 성사됐다. 홈 개막전 상대였던 키움과의 2차전이 비로 취소됐고, 지난 6월 29-30일 예정됐던 광주 홈경기도 비로 치르지 못했다. 3차례 우천 취소가 기록되면서 두 팀은 앞으로 11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상대 전적에서는 KIA가 4승 1패로 앞서 있다.

타석에서는 최원준에 시선이 쏠린다.

초반 부진을 털어내며 ‘주루 자신감’을 찾은 최원준은 연달아 그라운드를 돌면서 장타 실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이 ‘4개’였던 최원준은 지난 주 5·6·7호포를 연달아 터트리면서 강한 2번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복귀 선수’들에 눈길이 간다. 필승조 최지민과 마무리 정해영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최지민은 이전 부진으로 지난 12일 엔트리에서 말소, 재정비 시간을 보냈다. 어깨 염증으로 6월 24일 이후 자리를 비웠던 정해영도 재활을 마치고 마운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두 선수는 23일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시 전력에 합류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의 베카(가운데)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달을 가린 빛’ 광주FC, 대구전 연패 끊었다

K리그1 24라운드 원정 경기 1-0 승...베카 결승골 7위로 상승...K리그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돌파



광주FC가 대구 연패를 끊고 7위로 올라섰다.

광주FC가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베카의 결승골을 앞세워 대구FC를 1-0으로 꺾었다.

올 시즌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던 광주는 세 번째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광주는 전반 22분 안현주의 대표알 슈팅이 골키퍼 오승훈 옆을 지나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반 33분 ‘골대 행운’에 웃었다.

프리키 상황에서 베카가 오른쪽으로 패싱 공이 수비벽을 뚫고 대구 골대로 향했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간 공은 골대 맞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반 42분 대구 에드가의 헤더를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품에 안으면서 실점을 막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 이정호 감독이 아사니를 투입했다.

지난 17일 성남FC와의 코리아컵 8강전을 통해 재시동을 건 아사니는 스완지시티로 떠난 엄지성을 대신해 광주를 상징하는 ‘7번 유니폼’을 입고 후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아사니가 후반 9분 위력적인 원발 슈팅을 선보였다.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지만 이정호 감독의 박수나 나온 시원한 슈팅이었다.

후반 39분 신장무가 원발로 대구 골대를 두드렸고, 2분 뒤에는 아사니도 원발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1-0의 불안한 리드도 이어졌고, 대구가 막판 공세를 펼쳤지만 ‘행운의 여신’이 광주 손을 들어줬다.

후반 44분 세장야의 슈팅을 저지한 광주, 이어 흐른 공을 잡은 이탈리아까지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다. 이탈리아가 왼쪽에서 패싱 공이 오른쪽 골대로 향했다.

베카의 슈팅이 골대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골대 맞은 공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광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7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고, 후반 47분 김경민이 역습 상황에서 대구 이탈리아가 패인 원발 슈팅을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저지했다. 김경민은 흐른 공까지 처리하면서 실점을 막았다.

후반 50분에는 광주 역습 상황에서 대구 홍철이 아사니를 태클로 저지하려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어 홍철이 경고에 항의하며 주심을 밀쳤고 다시 또 경고 카드가 나오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됐다.

수적 우위를 점한 광주는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승점 3점을 챙겼다.

한편 이날 DGB대구은행파크에 1만 721명이 입장하는 등 K리그 1·2부 누적 관중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3시즌 승강제 도입 이후 최소 경기 200만 관중 기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밝힌 K리그1 24라운드 종료 기준 누적 관중수는 150만 6529명(지난해 146만 9703명·2.5%증가), K리그2 23라운드 종료 기준 누적 관중수는 53만 6408명(지난해 30만 212명·78.7%증가)으로 282경기 만에 합계 204만 2937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3시즌 승강제 도입 이후 최소 경기 200만 관중 기록이 작성됐다. 앞선 기록은 지난해 324경기(K리그1·2 각각 162경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학생육상 ‘금빛 질주’

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 금4·은2·동1 쾌거

광주·전남 고등부 육상 선수단이 ‘회장배 제22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보였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고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광주체육고 나현주(3년·사진 오른쪽)는 남고부 400m에서 48초8의 벽을 넘어선 47초9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현주는 남고부 2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고 박태연(1년)은 남고부 110mH(허들) 경기에서 2위에 자리했다.

광주체육고 육상팀 주장 나현주는 “최근 우리학교 단거리 선수들이 개인 최고기록을 달성하면서 더욱 열심히는 분위기”라며 소감을 전했다.

전남체육고 김다은(3년)은 여고부 800m에서 2분



<광주체육고 제공>

18초46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여고 1학년부 400m에서는 전남체육고 박재경이 58초98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남고 1학년부 멀리뛰기에서는 광양하이텍고 고준희(1년)가 7m23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복포탄태고 이혜진은 여고 1학년부 원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더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